

##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1-11)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세계복음화 증인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다. 그냥 읽으면 의문이 생길수 있는 본문이다. 지금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에 비하면 이들은 굉장히 잘 한 사람이다. 전 재산을 팔아서 조금 남겨뒀을지라도 교회에 헌금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상당히 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날 하루에 불려가버렸다. 자녀들이 남아 있었을수도 있다. 그래도 불려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언뜻 이해가 안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가 거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발견하고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줄 믿는다.

우리는 인생을 보통 광야에 비유한다. 이유는 대부분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히 광야는 굉장히 힘이 들었다. 모래와 돌 뿐이다. 그리고 바람 많이 불었을 것이다. 그리고 햇빛도 너무 강하다. 하루나 이틀 견뎌내기도 힘들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광야는 힘든 것 외에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인간이 절대 살수 없는 곳에서 40년 살았다면 기적의 연속이 필요하다. 출애굽 할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기적이었다. 홍해를 건넌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 기적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수 없는 환경이었다.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놀라운 일이다. 매추라기가 날라와서 잡아 먹을때까지 안 간다. 어쩌다 일년에 한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다.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있었다. 이 정도가 되면 백성들이 매일 춤을 춰야 되는데, 자주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다. 밤새도록 운적도 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다. 뱀에 물려 죽은 적도 있다. 전염병이 퍼져서 죽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데도 이랬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는 기적과 불신앙이 혼재했던 곳이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면 그런면이 있다. 문제도 있고 불신앙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기적도 일어난다. 그래서 광야에 비유해서 인생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중에서 하나님은 이 환경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넘어갈수 있는 원칙을 하나 주셨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것 잡고 살면 승리한다. 그것은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러면 기적은 바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의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가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 섰는데도 기적은 계속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기적은 막히지 않았다. 이 언약을 잡고 순종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 것이다. 오늘 찬송의 주된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였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매일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다. 어떨때는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런데 회개 할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지금도 일부러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번에 제 25차 세계선교대회 주제가 70인 제자이다. 이 단어를 두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이다. 발견되기 바란다. 그냥이 아니다. 나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 시대적 복음운동

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이다. 언약 되어야 하고 기도하면 내게 영적인 힘 나고 눈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문 따라가면 된다. 그 문을 따라가면서 언약을 잡고 사는 것을 순례자라고 한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다. 문을 여시고 그 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이다. 정복이라는 단어는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언약을 잡고 가나안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순종하는 자가 70인 제자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평생 있기를 축복한다.

### 1.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에 나온것처럼 이들은 전 재산을 팔았는데 조금 남기고 헌금했다. 당시에는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헌금한 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그런 시대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 팔았다. 그런데 다 헌금을 해야 하는데, 조금 남겼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둘다 한꺼번에 세시간 차이로 죽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충격적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아이들이 있었을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가 죽어버렸다. 누가 죽었나?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슨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조금 숨긴 것이 죽일만큼 잘못된 일인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남겨놓은 것을 두고 헌금한 사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팔아서 그 차액 가지고 십일조 하는 사람이 있나? 전부 다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십일조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잘 못 봤다. 핑계도 있을수 있다. 팔고나서 다시 집을 사려니까 저쪽도 올라서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할수도 있다. 그런데 내 생각이야. 월급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잘 한다. 그러나 부동산 수입에 대해서 십일조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 내 생각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어도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십의 오조는 했을 것이다. 써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닌가? 십의 오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데려가버리셨다. 벌을 내린 것이다. 천국에서 살아가라. 니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이유는 한 개 있다. 이 때는 세계복음화의 중대한 시간표였다. 유대인들의 핍박속에서 참 복음운동이 일어나려는 중대한 시간표였다. 하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가 없는 것이다. 그 때에도 전세계에 이런 저런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신경 안 쓰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분위기를 깨는 일을 한 것이다.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결과는 이 분위기를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래 저래 메시지나 소문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려가셨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전부터 목사님들이다. 지옥갔겠는가? 아니다.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불려 가셨겠는가? 어떤 사람은 보약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 왜 그랬겠는가? 이거 중요한 운동이다. 나를 잘 쳐다봐라. 이 감각이 있는가? 없으면 그냥 옆에서 붙어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대한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감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없으면 걸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복음화만 걸돌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해도 그리스도를 걸돌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운동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각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코로나 핑계대로 교회도 안오고 한달에 한번이나 와도

왔다고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틀렸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주일날 시간을 구분해놓았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다른 날은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의 변방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의 중앙으로 계속 쳐들어 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죽는 것이다. 부모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주일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 하는가? 고쳐야 한다. 안 고치면, 나는 고치기 싫다? 그러나 고치는게 자기에게 좋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감각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남은자로 살겠다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있었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 운동이, 이 분위기가, 시대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일등 성도이다. 십의 오조를 했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 내 재산의 십일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어디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인가? 내 돈에 내 마음이 전부 다 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이다. 사단에게 다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된다. 이렇게 살지 않는 몇 명 때문에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가? 아니면 무리에 묶여서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싶은가? 세상은 굉장히 우리를 넘어뜨린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등 나라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가신 이유가 무엇이나면 이 운동이 깨지면 안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에 절대 양보가 없다.

우리 민수가 14장 봤다. 그 날 저녁에 밤새도록 울었다.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백성들을 사랑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일을 포기했는가? 오해하면 안된다. 나는 너희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것도 사랑이다. 그날 저녁에 다 죽여도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시간 단위로 불려가버렸다. 놀라운 일이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적었다. 반복적인 실수를 했다.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다. 겁이 나서, 죽을까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쳤지 아브라함을 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왕은 잘못된 것이 없다.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내 선지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이야기 했다. 아브라함이 너를 기도하면 살것이고 기도 안하면 너와 너에 속한 자는 다 죽을 거라고 하였다. 겁나서 비겁하게 거짓말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었다. 왜 이런가? 하나님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인다.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데 왕을 치고 아브라함을 살려줬다. 오히려 재산을 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때에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윤리적으로만 실수한게 아니라 불신앙인데도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면 아브라함을 살려놔야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야 합리적인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윤리가 바르면 뭐하나?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남미, 이 복음운동의 시작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노력했다. 기초를 쌓았다. 그런데 진짜 본격적인 것의 출발이다.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70인 제자들이 미국과 남미에서 일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면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흐름을 타야 한다. 이 흐름을 혹시 방해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자기에게도 굉장히 손해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결과적으로

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야 한다. 방해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계산없이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고 다 아신다는 느낌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느낌 없으면 그리스도 말해도 피상적이다. 어떻게 이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뱀의 머리가 박살나야 한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산업과 경제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산업과 경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70인 제자이다. 내가 70인 제자 되어야 한다. 산업도 있고 70인 제자다 그러면 날개 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란다.

## 2. 남은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든 그르든 나는 이 시대의 남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최고로 귀한 사람이다. 때로는 착각도 괜찮다. 완전 착각해서 옆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는 이 시대를 두고 남은 자라면서 말해도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고도 예쁘고 귀하게 보시겠는가? 다 이렇게 되기 바란다. 잘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다 같다. 다 필요없고 나는 이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언약이다. 내 마음에 영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단어를 줬는데, 미국, 남미, 다민족이다. 언약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 된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다 필요없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로서 끝이다. 이것이 언약되면 기도 된다. 그 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 이 언약 잡고 이 시대의 남은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위하여 이것을 방해하는, 내게 이것이 들어오고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뱀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기 바란다. 부족해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하면 어느날 이 세계복음화가 언약으로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면 그 전에 잡던것과는 영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이 언약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 그게 순례자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내 인생도 정복하고 문제도 정복한다. 사단도 정복하고 사람도 살린다.

올해 우리는 4대 기도제목안에서 지교회, 70인 중직자, 렘넌트 운동 언약으로 잡았다. 우리 전도자들과 중직자들이 70인 제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교회 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렘넌트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단어들의 출발이 내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이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지속하는 자에게만 집중기도를 주신다.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남미 끝까지 가는 것이다. 갈수 있겠는가? 능히 간다. 미국, 끝까지도 갈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런 소원을 가진 제자들이 미국과 남미에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제자들의 플랫폼 교회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플랫폼 교회가 되겠는가? 메시지를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메시지의 내용은 복음이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